

# “망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부처와 조사의 불성입니다”



**밀운 스님**은 1967년 비로사(毘盧寺)와 봉선사에서 교과 수료. 1982년 스리랑카 승가사범대학 미투라 박사학위(삼장법사), 1983년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받음. 1983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198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 과정 수료. 동화사, 봉선사, 봉은사, 구업사에서 주지 역임. 제 5-7대 중앙총회 의원직 역임. 2007년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다.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에서 안거를 성만하였고 봉선사 열반선원에서 계속 안거 중이다.

**밀운 스님** (봉선사 회주)

**봉** 선사 일주문을 들어서자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점점 거세어진다. 연잎위로 다부어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린다. 몇 백 년의 세월을 이어 온 고목나무 위로 비가 내린다. 모든 사물이 비에 젖어 처연하게만 느껴지는 풍경이다. 밀운 스님이 주석하시는 피우정(霏雨亭) 앞에서 겨우 사선으로 내리치는 빗발을 피할 수 있었다.

밀운 스님의 거처는 수행자의 거처답게 앉은뱅이책상과 다탁만이 놓여있다. 먼저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렸다. 행초서로 쓴 액자가 하나 걸려 있기에 뜻을 알고 싶어 하니 직접 지으신 한시(漢詩)라면서 읽어주셨다.

“무량공안 불조망어(無量公案佛祖妄語) 중생망상 불조본성(衆生妄想佛祖本性)이라. 부처와 조사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요, 중생이 일으킨 망상이 바로 부처와 조사의 불성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연꽃을 든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 가섭존자가 연꽃을 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가섭존자가 왜 웃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지만 망상 일으키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와 조사의 불성입니다. 본래 우리 본성은 청정함에 오염된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망상인 것이라.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본래는 청정함에 번뇌 망상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데,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망상도 다 청정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기 전 그것이 바로 ‘나’이고 이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와 조사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여쭙었더니,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인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깨달음은 문자와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선가에서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하기에 선가의 가르침이 어렵기만 하다.

“부처란 깨달았을 때 부처인 것이지, 깨닫지 않은 것을 부처라고 해서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하신 후 견성하였기 때문에 부처인 것이지, 깨닫지 못했다면 부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부처 너도 부처, 깨도 부처 소도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깨닫지 못했다면 다 중생인 것이지. 단 불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다 부처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초목이나 바다 속 어류에도 불성이 있으며, 그 불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미혹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니라.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마음이 평정하면 중생이 부처”라고 하였듯이 밀운 스님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은 의미이리라.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마음이 평정한지 번뇌가 들끓는지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일이다.

“사람과 동물과 어류와 초목의 불성이 왜 같은가 하면, 가령 내 몸에 들어있는 물이나 조목이 썩고 있는 물이나 물고기의 몸에 있는 물은 그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자성이 불변하다는 것은 물이 지니고 있는 성질, 불이 지니고 있는 성질 등 그 자성의 경지는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허공계에는 많은 원소로 꼭 차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체내의 원소 125개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8만4000의 번뇌가 있다고 설한 것은 바로 우리 몸에 8만4000의 원소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원소는 불변의 경지입니다. 인연에 따라 어떤 형태로 뭉쳐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밀운 스님은 “우리 몸의 구성 원소는 크게 해서 오온이지만 쪼개고 쪼개 보면 8만4000원소입니다. 오온(五蘊)을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 합니까. 나는 지수화풍의(地水火風意)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별 의심 없이 검증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으로 경전이나 사물을

**경전은 부처님 마음 전하는 길 불성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중생’ 새로운 눈으로 사물 볼 줄 알아야**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말씀해주시기를 간청하자, 스님은 예전에 지었다는 시 한수로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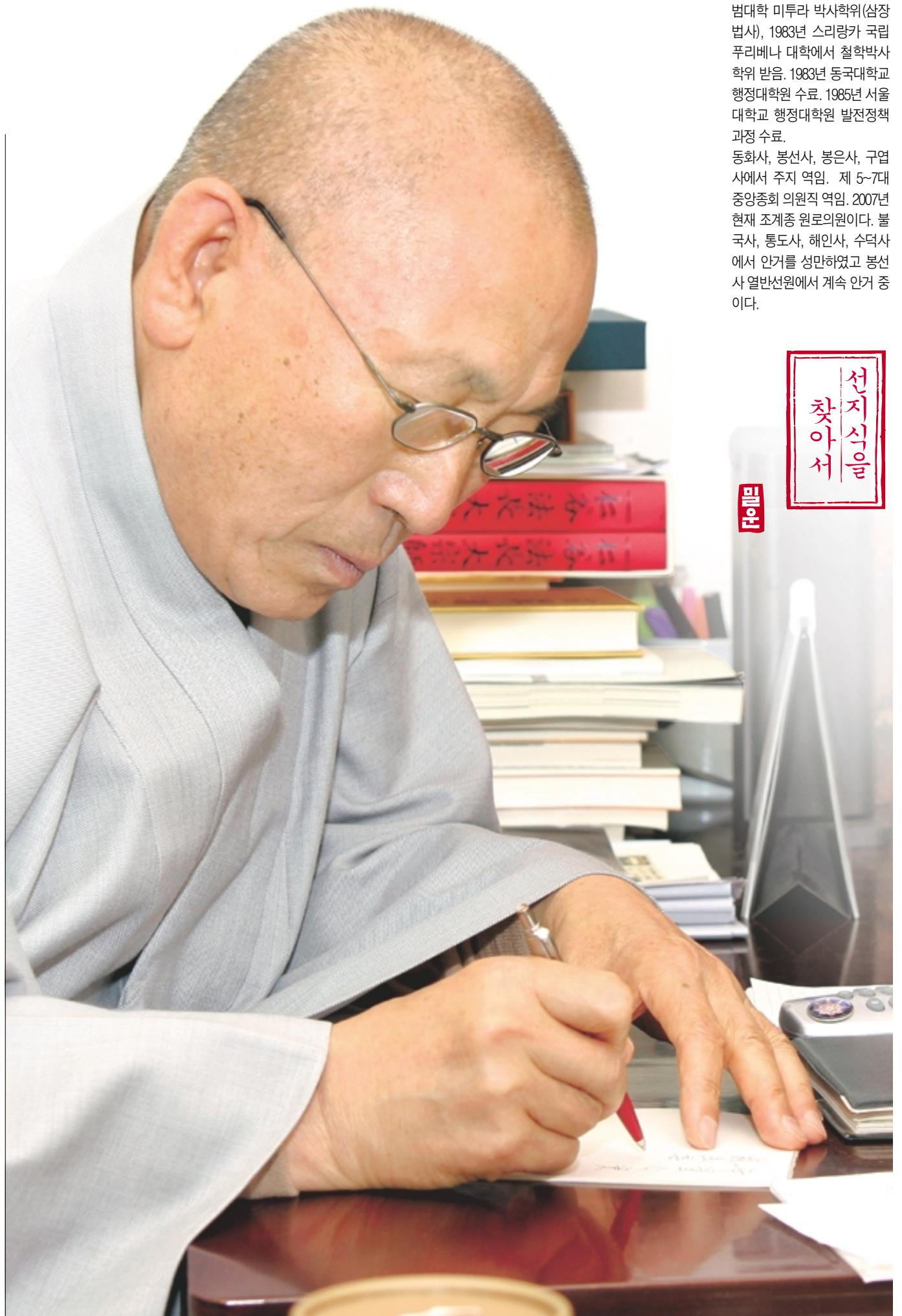
“부목사시 기피우정(負木捨榮寄霏雨亭) 불관풍뢰 개안수면(不關風雷開眼睡眠)이라. 부목이 번뇌 망상을 다 버리고 피우정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우정이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다 피우정이 되는 것이지요. 지구에 살다보니 태풍과 뇌성번개가 몰아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이니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피고 지는 한 송이 꽃에도 말을 얹고 생각을 얹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중생심인데, 스님의 가르침대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염사를 부렸다. “힘든 가운데 버려야 버리는 것이지, 쉬운데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복잡한 것을 놓아야 놓는 것입니다. 누가 좋아하거나 미워한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밀운 스님은 안거철이 따로 없고 봉선사 열반선원에서 365일 안거인 것이다. 올해 세수 75세인 밀운 스님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고 안광이 빛났다. 선승에게서 느낄 수 있는 면모이다.

조금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활짝 핀 보랏빛 매발톱꽃잎 위로 세차게 빗물이 떨어진다. 하지만 매발톱꽃은 세찬 빗줄기를 즉비인양 초연하게 맞고 있다. 이 비가 그치면 매발톱꽃은 견성이라도 하러나. 우산을 펴 들고 우주 공간 속에 나만의 피우정을 만들었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선지식을 찾아서

2006 대한민국 여성중앙대 우수상품 선정(한국일보)  
2006 베스트 마스터마인 기업&브랜드 선정(스포츠투 서울)  
매일매일 웰빙건강 및 삶의질 향상

www.magtorin.com

MASTERPIECE OF THE WELLBEING COLLECTION  
아주 특별한 선물  
**마·그·토·린**

다가오는 5월 부모님과 은사님께 드리는 효도, 보은, 감사, 사랑의 선물을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로 준비하세요  
이제, 소중한 분께 건강을 먼저 선물하세요!

Magtorin Jewelry  
마그토린 웰빙주얼리는 스테인레스 (또는 신주) 안쪽에 패라이트 자기장을 형성하고 용이온이 생성되는 마그네틱 실리콘밴드를 결합한 후 원적외선 에너지로 코팅한 아이디어 퓨전 웰빙 제품으로 착용감이 좋고 디자인이 고급스러우며 코디하기가 쉽다.

단체 주문시 로고 혹은 미니셀 색인 가능  
단, 로고는 인공로용이나 최상급기가 아닙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마그토린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제품 사이즈-남(여)-  
S : 17.5cm(16.5cm)  
M : 18.5cm(17.5cm)  
L : 19.5cm(18.5cm)  
주문시 사이즈 선택

반면 구성  
원래는 --  
모양이 달라집니다

MT 204T ₩86,000  
MTB 207G ₩98,000  
MT 203G ₩79,000  
MTB 206T ₩98,000  
MT 205G ₩86,000

제조 및 판매: 서원SNKO | 제품문의: 02-568-1117 | 국민은행: 443101-01-057676(예금주:최인경)